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林漢鐘) 회장 등 중국 방문 중국 요령성 조선족 자치지역 기생충관리사업 차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



▲ 검사장비 및 구충제 기증식 후 악수를 하고 있는 임한중 회장과 요령성 위생 방역센터 Xu Jing-tian(許景田)주임의사



▼ 기증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임한중회장과 윤청하 건협 총무기획국장(사진중앙)



▲ 조선족 간흡충 감염자 투약



▲ 조선족에 대한 보건교육 간담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林漢鐘) 회장을 비롯한 직원과 기생충학자들이 한중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요령성의 조선족 자치지역 기생충 퇴치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임회장등은 이 지역 조선족의 기생충 감염 상태를 조사하고, 중국측 참가자들과 현지의 효과적인 기생충관리를 위한 의견교환 및 상호 협조방안을 모색했다.

임회장 등은 이외에도, 현지인의 기생충 퇴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회충·요충·간흡충 등 퇴치용 구충제 5만

여정과 현미경·부란기 등 신속한 검사 수행에 필요한 부속장비도 지원하였으며, 한국의 기생충 관리 경험을 토대로 한 제반 행정 및 검진 기술도 전수했다.

이번 중국 현지검진에는 한국 측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회장, 윤청하 총무기획국장, 최상철 대리, 민득영 한양의대 학장, 서울의대 채종일·홍성태 교수, 연세의대 옹태순 교수, 충북의대 엄기선 교수, 성균관의대 공윤 교수 등이, 중국 측에서중국예방의학과학원 기생충병 연구소, 요령성 위생방역센터 전문가 등 5명의 교수가 참가했다.

한편 한중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지난 '94년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와 중국 위생부 간의 보건의료분야 증진 협약에 따른 것으로, '95년부터 KOICA의 지원으로 양국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기생충병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축적된 행정적·과학적 기술을 중국에 전수함으로써 중국의 기생충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상호간 교류를 한층 원활히 하여 양국간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원중 충북도지사, 금요일장서 충북지부 무료건강검진권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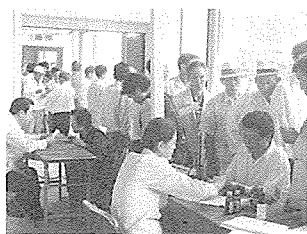
이원중 충북도지사는, 지난 8월 28일 농협 충북지역 본부가 개최하는 매주

금요일장서를 방문하고 건협 충북지부 무료 건강검진 행사장에서 무료건강검진권을 추첨했다.

이지사는 이날 2장의 무료건강검진권을 추첨해 참가자에게 증정했는데 이 중 괴산군 청안면에 거주하는 김상희씨가 충북지부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위암 초기로 판명되어 수술을 받고 완쾌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이외에도 150여명의 지역주민이 무료 검사를 받았다.

한편 충북지부는 지난 9월 2일, 농협 음성고추축제 행사장에서도 200여명의 주민에게 무료검사를 해주었다.

충북지부, 농협조합원 등 건강검사 실시



충북지부는 지난 9월 13일, KBS 무의촌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괴산 군자 농협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뇨검사·혈압검사·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충북지부는 또 9월 25일, 영

대전·충남지부, 세계 초 일류 연구중심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재학생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종합검진센터는 지난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원장 최덕인) 교수 및 재학생(학사·석사·박사과정) 4천 6백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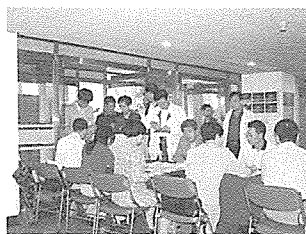
이번 검진은 간기능 등 45개 항목에 대해 실시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의 산실인 KAIST 재학생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보건정책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된 21세기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 자연과학부, 공학부, 테크노경영대학원, 인문사회과학부 등 4개 학부 15개 학과로 학사·석사·박사 연계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KAIST는 지금까지 2천 8백 64명의 박사를 배출하는 등 한국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향한 대학, 미래를 여는 연구 슬로건 아래 과학 입국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동군 학산 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뇨검사·혈압·비만도 등 무료 건강검사와 상담을 실시했다.

광주·전남지부, 5.18관련자 건강검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월 28일, 5.18 관련자 보상금 추가 신청에 따른 신체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1998년도 순회이동보건교육 10월 일정 성료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98년

도 순회 이동보건교육사업 10월 일정을 모두 순조롭게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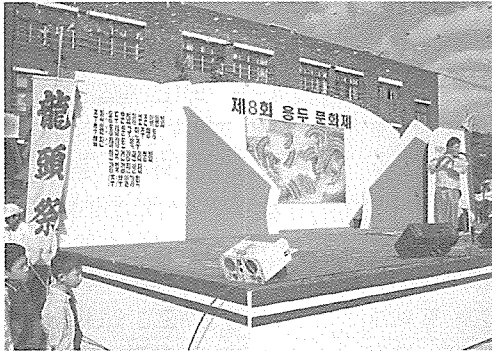
전남 곡성군을 비롯해 전남 3개 지역, 광주 3개 지역, 전북 4개 지역, 경북 4개 지역, 서울 1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건협은 11월 중에도 인천·충북·경기 지역에서 순회 이동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순회 이동보건교육 11월 일정

- ▲ 인천 :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11.16.), 중구 인현동 인천백화점(11.17.), 부평구 동아시티백화점(11.18.)
- ▲ 충북 : 보은군 공무원교육원(11.19.), 음성군 마을회관(11.20.), 옥천군 마을회관(11.21.)
- ▲ 경기 : 용인시 마평 2동·이동면 천 1리(11.24.), 광주군 실촌면·오포면(11.25.), 화성군 우정면·마도면(11.26.), 안성군 일죽면·양선면(11.27.)

건협 강북검진센터, 용두문화제 참여해 건강검진 실시



건협 강북 건강검진센터는 지난 10월 18일, 동대문구 용두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제 8회 '용두문화제' 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주민 110여명이 기초검사(혈압 · 신장 · 체중 · 비만도) · 소변(당 · 단백) · 혈당 · 혈액형 · 기생충 검사와 건강상담을 받았다.

이날 무료검진 행사장에는 또 동대문 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 구의원 및 구의회의원,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방문해 건협 직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한편 용두문화제는 그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행사의 재현을 통해 선조들의 고귀한 얼을 되살리고 향토문화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 지역

주민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미풍양속을 진작시켜오면서 동대문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 국왕제례 및 전통 혼례 재현을 비롯해 공개 콘서트,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구민 화합에 크게 기여했다.

◀38

울산지부, 1지구 의보소속 피부양자 순회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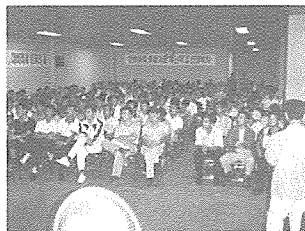
울산지부는 울산 제 1지구 의료보험조합 소속 피부양자에 대한 성인병 순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14,761명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 검진은 검진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구 복산 1동 사무소를 비롯해 각 구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읍주군 각 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관리

협회 울산지부(남구 삼산동 1509-9, TEL 052-268-5896~7)로 하면 된다.

전북지부,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전북지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전주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부 정순덕 건강증진 2

과장은 이 기간동안 전주시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로 위촉되어,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지부, 지역주민 대상 암 검진

경상북도와 건협 경북지부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19일까지 도민건강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대상의 암(위암 · 간암)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구미시 · 산동 보건소 등 7개 보건(지)소에서, 암검진을 희망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순회형식으로 이루어졌다.